

주일가정예배

2022년 10월 9일 주일예배

인도: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6장 13~15절)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들이 사명을 따라 열매 맺는 이 계절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회개와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삶을 조율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거친 세파에 시달린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테러와 자연재해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꿈조차 꿀 수 없을 만큼 사방으로 옥여쌘을 당하고 있는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관용으로 품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405장 다같이

1.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2.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3.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후렴)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신명기 32장 35절 인도자

35. 그들이 실족할 그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설 교 『 진노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찬 송 208장 다같이

1.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2.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서 늘 보호하시네
3.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4.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5.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 멘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광 고 】

- 1,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 말씀과 찬송, 은혜가 풍성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3. 거룩한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날로 성장케 하옵소서
4. 헌금안내 :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진노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신명기 32:35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는 믿어도 지옥은 별로 믿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뜻밖에 지옥에 가는 자들도 많다. 지옥의 실재는 불편한 진실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다. 예수님은 죽어서 들어갈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도 선포하셨다. 지옥은 심판 이후 형벌의 장소이며, 사람들이 탄식하는 불과 암흑의 장소이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형벌의 장소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장 유명한 설교로서 단권의 책으로도 출간된 것은 “진노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다. 작금의 신학자와 설교자가 현재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한다면 에드워즈는 장차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와 지옥을 설교하고 있다. 지옥의 형벌을 강조하므로 믿음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본문] 신32장은 모세의 마지막 노래로 자손들에게 들려줄 경고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을 것이고 축복을 받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귀신들을 섬긴다. 그들은 지혜도 분별력도 없는 배은망덕한 백성이다. 그들이 즐기는 향락은 자기를 죽이는 무서운 독이다. 그들의 영적인 형편은 무척이나 위태위태하다. 이스라엘은 미끄러운 곳에 있어서 항상 “실족”하여 넘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보복하실 것이다. 속히 그리하실 것이다. ▶[교리] 악한 사람은 어느 순간이라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악한 사람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①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라도 악인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어떤 강한 자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② 악인들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마땅하다. 공의는 악인의 죄에 대한 무한한 형벌을 큰 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③ 악인은 이미 지옥형 선고를 받은 상태이다. 그들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집행을 앞두고 있다. ④ 악인들은 지옥의 고통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대상이다. 지옥은 준비되어 있고, 불도 예비되어 있다. 지옥은 악인들 아래서 입을 벌리고 있다. ⑤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기만 하면 어느 순간 이들 악인들을 덮쳐 자신의 소유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다. ⑥ 악인들의 영혼 속에는 지옥의 원리가 왕 노릇 한다. ⑦ 눈에 보이는 뚜렷한 징조가 없다는 것이 악인에게 안전보장이 되지 못한다. ⑧ 자신이 아무리 주의하고 신중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⑨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수고는 실패할 것이다. ⑩ 하나님은 한 번도 불신자에게 지옥에 가지 않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다. ▶[적용] 에드워즈는 지옥에 떨어질 자들은 그리스도밖에 있는 신자들임을 알려준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비참한 세계, 유황불이 타고 있는 불 못이 그들의 발밑에 펼쳐져 있다. 지옥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그들이 지옥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죄를 지음으로써 영혼을 납처럼 무겁게 한다면 그 큰 무게와 압력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길밖에 없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다. ▶응급실 의사가 충격요법으로 죽어 가는 자를 살려내듯 지옥에 대한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다. 에드워즈의 설교는 지옥에 빠진 성도들을 구하는 설교가 되었다. 그의 설교로 죄에 대한 통회와 자복, 그리고 일상생활의 변화로 나타났다. 설교의 핵심적 권면은 이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어라.